



# Magandang araw po, Pangasinan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September



1

2

3

4

5

6

7

8

9

10

출국

마닐라  
국립박물관

- 1. 마닐라 시티투어
- 2. 팡가시안 이동

11

12

13

14

15

16

17

- 1. 아띠하우스 청소
- 2. 장보기

팡가시안  
시티투어

- 1. 따갈로그어 수업
- 2. 프로그램 OT

따갈로그어  
수업

푸가로  
답사

팡가시안Y  
수영수업

- 1. 덤프사이트 답사
- 2. 캠페인 참여

18

19

20

21

22

23

24

필리핀Y  
방문

휴일

덤프사이트

푸가로

루존대학교  
탐방

덤프사이트

살라빙아오  
탐방

25

26

27

28

29

30

휴식

덤프사이트

휴식

덤프사이트

푸가로

Leadership  
training 1일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October



1

Leadership training 2일차

2

3

4

5

6

7

8

휴식

덤프사이트  
(활동계획토의)

덤프사이트

비자연장

푸가로

따갈로그어 수업

언어수업  
(따갈로그, 영어)

9

10

11

12

13

14

15

휴식





- 1 Hello Philippines & Pangasinan
- 2 팡가시난 YMCA 소개
- 3 활동지 소개
- 4 우리의 9월
- 5 피드백
- 6 개인 에세이



**01**

**Hello Philippines**

**& Pangasinan**



# Hello Philippines & Pangasinan

유난히 더웠던 2016년 여름, 철원에서 부터 안양까지 우리는 1달간의 긴 훈련을 무사히 잘 마쳤다. 뜨거웠던 여름만큼이나 우리의 열정도 뜨거웠다. 인천, 수원, 대전, 부산! 그렇게 자라온 환경도 성격도 다른 넷의 열정이 모여 우린 한 팀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지는 5개월 간의 열정이 함께할 곳인 필리핀 팡가시난으로 정해졌다.

2박 3일의 귀국 전 캠프 후 9월 8일, 우린 저녁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의 비행 끝에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착륙도 입국심사도 늦어지면서 많이 지쳤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찼다.

마닐라에서의 2박3일 적응기간을 갖고, 팡가시난으로 향했다. 팡가시난을 가는 길은 우리나라 명절의 고속도로 모습 같았다. 마닐라를 빠져 나오는데 무려 3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8시간 끝에 우린 팡가시난에 도착했다.



# Hello Philippines & Pangasinan



마닐라 공항에서 부터 철저한 보안이 느껴졌다. 두테르테 취임 후 범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범죄율은 높고 위험하다고 한다. 어느 곳을 가던, 어느 가게를 가던 늘 Security가 있다. 또한 마닐라 뿐만 아니라, 팡가시난도 마찬가지 였다.



신호등이 없다. 아이러니하지만 여태껏 교통사고를 본 적이 없다. 보행자 신호도 횡단보도도 잘 없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땐 손을 내밀며 정지신호를 보낸다. 아! 마닐라에서의 교통체증은 우리나라 명절날 같았다. 잊을 수 없다.

# Hello Philippines & Pangasinan



마닐라에서 4시간 떨어진 팡가시난!  
우리는 교통체증에 걸리는 바람에 8시간이나 걸려 팡가시난에 도착했다. 우리가 있는 곳은, 팡가시난 주의 다구판 시티다. 팡가시난엔 4개의 시티가 있는데, 다구판 시티는 꽤 큰 도시라 한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어촌지역이다. 그래서 큰 어시장도, 마켓에 가도 많은 해산물을 볼 수 있다. 제일 유명한 물고기는 '방구스'라는 물고기다. 방구스 축제를 할 만큼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 받는 물고기다. 하지만 자주 먹다 보니 살짝 질릴 때도 있다.

**02**

# 팡가시난 YMCA 소개



# 팡가시난 YMCA 소개



## 다구판 시티에 위치한 팡가시난 YMCA

혼잡한 도로변에 위치한 YMCA 건물은 낮에는 언제나 정신이 없다.

뜨거운 햇살과 시도때도 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로 부터의 안식처이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과 꿈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곳 YMCA.

언제나 웃으면서 우리는 맞아주는 YMCA 식구들과 수줍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는 아이들을 보면, 앞으로 5개월 간 이곳에서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아미하우스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를 뛰게 할 심장같은 곳에서 멋지게 성장하고 싶다!

## 팡가시난 YMCA 소개



YMCA건물 내에서 유일하게 에어컨이 있는 우리에게 오아시스같은 공간. 언제나 오피서들과 장학생들이 있어서 낮에는 조용하거나 심심할 틈이 없는 공간이기도 하다. 우측에 수영장 사진은 YMCA에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강습을 위한 공간이다. 가끔 오피서들이 운동으로 수영을 하기도 하는 공간이다. 뜨거운 열정과 행복한 미소가 끊이지않는 YMCA.

# 팡가시난 YMCA 가족소개



**꾸야 지미**

팡가시난 YMCA 총장님. 언제나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신다. 아버지같은 따뜻함과 유쾌함은 너무 매력적이다.



**아떼 마셀**

필리핀 YMCA 스태프. 우리의 어머니같은 분이시다. 팡가시난에 오실 때 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다 주신다. 별 때마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꾸야 마빈**

팡가시난 YMCA 서열 두 번째.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번개 같은 속도로 운전하고 오토바이를 즐겨 타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 주신다.



**롤리**

우리의 메인 코디네이터. Dencio(형준)와 동갑이고 우리를 위해 살신성인으로 도와주고, 챙겨준다. 때론 친구처럼 때론 선생님이 되어 준다.



**에멀슨**

팡가시난 YMCA 서열 세 번째. 게임중독자(?), 조용한 편이지만 유머감각이 뛰어나고 보기와 다르게 간호관련 자격증의 소유자다.



**제레미**

두 번째 코디네이터. '초코'라는 별명을 가졌다.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일을 할 땐 진지하다. 요리, 청소, 물건 고치기 등등 못하는 일이 없는 만능 코디 이다.

# 팡가시난 YMCA 가족소개



YMCA에는 그 외에도 많은 친구들과 아이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환경과 문화에서 자랐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 하나만 통한다면,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익숙했던 생활들을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고 무언가를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도 다르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이들이 있기에 항상 힘 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서로 많이 의지하고 도와 주며 멋지게 동반성장하고 싶다.

**'라운아피'의 출발이 좋다. 파이팅!**

# 03

## 활동지 소개

- 1) 덤프사이트 (Dumpsite)
- 2) 푸가로 (Pugaro)



## 활동지 소개 : 덤프사이트(Dump site)

‘Dump’란 의미는 집어 던지다, 비우다 등의 동사적 의미와 쓰레기 더미, 쓰레기 하치장 등의 명사적 의미를 갖는다. 즉, 덤프사이트는 쓰레기 부지를 말한다.

쓰레기 더미 안에 사람이 산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삶의 터전의 요소를 가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름다운 Bonuan tondaligan Beach를 걷다 보면, 덤프사이트가 나온다.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안에 사람이 산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곳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잃었다. 마음이 무너졌다. 무너져 가는 마음을 다잡고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작디 작은 고사리 같은 손엔 많은 상처가 가득했다. 하지만 덤프사이트 속 가장 큰 보물은 사람이었고, 아이들이었고 사랑이었다. 이 곳에서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찾아가고 있다. 이 아이들을 만난 건 우리 삶의 큰 축복임을!



## 활동지 소개 : 덤프사이트(Dump site)



입구부터 나는 냄새는 늘 적응하기 힘들다. 오기 전에 본 사진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쌓여있었다. 길도 없어 늘 담벼락을 걸어서 마을에 들어가야 했다.

담벼락을 지나 도착한 마을주변도 쓰레기 천지였다. 쓰레기는 마을 주민들의 돈벌이 수단이자 전부였다.



덤프사이트 옆엔 아름다운 Bonuan tondaligan Beach가 위치해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도 감사한 일은, 이 바다가 아이들에게 놀이터가 되어준다. 또 덤프사이트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바다는 큰 위로가 되어준다.

## 활동지 소개 : 덤프사이트(Dump site)



덤프사이트 중앙에 위치한 블루하우스!  
사랑스런 우리의 천사 쥬빰이 자주 있는 곳이다. 이 곳은 덤프사이트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로 비료를 만드는 곳이다. 이 곳에서 아이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데, 마땅한 장소인지 고민이 많다.



덤프사이트 마을 뒤편에도 여전히 쓰레기 천지다.  
필리핀은 세면용품부터 먹거리까지 비닐봉지로 된 것들이 많다. 또 우리나라와 다르게 물건 구입 후 담은 비닐봉지도 무료다. 필리핀의 비닐봉지 사용만 줄인다면, 덤프사이트의 크기는 훨씬 작아질 것 같다.

## 활동지 소개 : 덤프사이트(Dump site)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천사, 덤프사이트의 보물

덤프사이트 안에 유일한 보물들. 이 아이들과 함께여서 웃는 일도 행복한 일도 가득하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란 이 귀한 감정을 다시 한 번 가르쳐주는 소중한 이 아이들에게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 뿐이다.



## 활동지 소개 : 푸가로(Pugaro)

**푸**가로를 가던 첫 날, 어시장 앞에 위치한 선착장에 가야 했다.

하지만 그 전날 많은 폭우로 어시장부터 선착장에 가는 짧은 그 길이 물에 잠겼다. 그래서 우린 시장에 계신 분의 도움으로 수레를 통해 선착장에 이동했다. 그만큼 첫 시작부터 잊지 못한다.

선착장에서 버스 마냥 몇 정거장의 다른 섬들을 지나 3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푸가로 라는 섬이 나온다. 그저 평화롭다. 아름답다.

우리의 활동장소는 2곳이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같은 ‘Daycare Center’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과 Daycare센터 앞 공터에 조그마한 농장인 ‘그린 하우스’를 만드는 일!

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덤프사이트와 같이 늘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즐겁다. 아이들을 위한 그린하우스도, Daycare center에서 활동도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싶다!



## 활동지 소개 : 푸가로(Pugaro)



푸가로로 가는 배를 타는 선착장의 모습.

이 곳의 배는 우리나라 버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 사람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1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다. 일찍 나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때면 사실 너무 힘들다!



배를 타고 푸가로로 이동하는 길!

푸가로를 가는 길엔 많은 섬들이 있다. 버스처럼 다른 섬의 선착장에 사람들을 내려주거나 태운다.

바다 위를 달리는 순간엔 그저 기분이 좋다. 하늘도, 바다도, 앞에 보이는 풍경 모두 다!

## 활동지 소개 : 푸가로(Pugaro)



Daycare center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낮선 풍경을 보여주었다. 바로 엄마들의 동행 그리고 함께하는 수업 참여율이 참 높았다. 그래서 참 좋았다. 엄마와 함께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우리의 활동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그린하우스가 있었던 예전 장소. 15기가 함께 했던 그린하우스는 태풍으로 물 웅덩이가 생겨버렸다. 이제 Daycare center앞에 새로 이전된다. 전보다 조금은 협소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 다시 시작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다.

**04**

**우리의 9월**



# 우리의 9월

## 1.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마닐라에서 팡가시난으로 오기 전 날, 꾸야 지미께서 우리에게 필리핀에서 쓰게 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다.  
각자의 캐릭터에 맞도록 예쁘게 이름을 지어주신 꾸야 지미께 감사름! 앞으로의 4개월도 파이팅! ☺

Lucas(청열)  
☞ 잘생긴 사람

Dencio(형준)  
☞ 웃긴 사람

Amelia(희진)  
☞ 피어나는 꽃

Rosita(선빈)  
☞ 장미



# 우리의 9월

## 2. 막내야 생일 축하해 ☺

9월 29일, 우리 팀 막내 선빈이의 생일이었다. 철통 보안의 선물사기(?)부터 나름의 몰래 카메라 까지!

타지에서 미역국도 먹지 못한 채 보내게 되어 마음 쓰였지만, YMCA 친구들의 축하와 사랑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선빈아, 다시 한 번 생일 축하해 ♥



## 우리의 9월

### 3. 아띠 살롱 개업!

마닐라에서 부터 신경 쓰였던 롤리의 머리! 이발병 출신 형준이가 롤리의 머리를 책임졌다. 롤리는 계속 'That's O.K'라 얘기했지만, 아니었던 것 같다 ㅎㅎ 미안하다 롤리야! 아무튼 아띠 살롱의 입소문은 빨랐다. 디자이너 형준이는 YMCA에 가서 꾸야 지미의 머리도 책임지게 되었고, 만족하셨다고 한다 😊 다음달도 부탁해!



## 우리의 9월

### 5. 형준이의 맥스사랑

어느 날 저녁, 아띠 하우스의 벽에 도마뱀이 나타났다. 형준이는 이내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이름은 맥스, 왜 맥스인지 모르겠다) 맥스를 꼭 잡겠단 의지를 보였다. 결국, 맥스를 잡아 각종 먹이(날파리, 모기 등)를 잡아 넣어주며 애지중지 아꼈다. 하지만 우리 규칙 중 ‘애완동물 눈으로만 보기’라는 규칙에 따라 맥스와 눈물의 작별을 했다고 한다.



## 우리의 9월



### 6. 마닐라 투어

팡가시난에 오기 전, 3일간 마닐라에 머물렀다.  
마닐라 YMCA 숙소에 묵는 동안, 마닐라의 이곳 저곳  
을 투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 7. 다구판 시티투어

팡가시난에 도착한 다음 날, 우리가 살고 있는 다구판 시  
티 투어를 했다. 앞으로 4개월을 함께 할 곳인 만큼 더 관  
심 있고 흥미 있게 볼 수 있었다.

## 우리의 9월



### 8. 루존대 방문

팡가시난에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인 Luzon대학교가 집 근처에 있다. 또한 YMCA에서 일하시는 Sir.nancy가 루존대학교 교수이다. 교수님의 도움과 발런티어 친구들의 도움으로 스포츠 데이에 Luzon대학교를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9. 농구 올스타 경기 관람

Luzon대학교 단과대 대항 농구경기를 마치고, 필리핀의 유명한 배우부터 올림픽 복싱 은메달리스트, 유명한 농구선수 등 많은 유명인들이 참가한 올스타 경기를 맨 앞 좌석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 정말 재미있었다!

## 우리의 9월



### 10. 살라핑아오 방문

YMCA 발런티어인 제프와 자이의 집이자, YMCA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살라핑아오에 방문했다. YMCA 프로그램 중 공중 화장실과 그린하우스 사례를 직접 보았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의 프로그램도 파이팅!



### 11. 리더십 트레이닝 참가

9월 30일 부터 10월 1일, 이틀 동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리더십 트레이닝에 참여했다. YMCA는 전체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리는 롤리와 함께 스테이션을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고 한국인이다 보니 제일 인기가 많았다! 이틀간 천명의 아이들에게 싸인과 사진을 찍었다. 힘들었지만 뿌듯했다!

**05**

**피드백**



# 피드백

## 1. 의사소통의 문제점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3가지다. 영어, 따갈로그어 그리고 지역언어(팡가시난어). 언어 수업을 진행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의사소통에 무리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덤프사이트나 푸가로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따갈로그어 밖에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을 만날 때면 의사소통이 어렵다. 따라서 현지 코디네이터 롤리가 우리의 부족한 의사소통에 늘 도움이 되어주곤 한다. 우리의 부족한 의사소통에도 불구하고, 늘 두 눈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YMCA친구들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결 같이 안아주는 사랑스런 아이들에게 고맙다. 10월엔 더 열심히 언어공부를 해야겠다!



# 피드백

## 2. 그 동안 덤프사이트에서 진행해온 프로그램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을까?

처음 덤프사이트에 다녀오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할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해 참 많은 고민이 생겼다. 우리가 오기 전에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을 텐데, ‘그 프로그램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을까’ 라는 고민이 우선적으로 들었다. 우리 짧은 시간 안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외부의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의 진행이 아닌 조금이라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겠다!



## 3. 푸가로의 Daycare Center에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꼭 필요할까?

덤프사이트에 다녀오고 나서, 푸가로의 Daycare Center에 갔었을 때 ‘굳이 이 곳에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부모님들의 높은 수업참여율과 비교적 잘 되어있는 교실 그리고 프로그램. 롤리가 이야기하길, Daycare Center의 선생님이 혼자 많은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속성과 효율성을 따졌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과 예산보다 한 선생님을 더 채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민해보고 이야기해보아야 겠다.



## 4. 푸가로의 그린하우스를 진행하는 진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전 기수가 해온 그린하우스 상태를 보았을 때, 할 말이 없었다. 태풍으로 침수된 그린하우스는 지속적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지만 잘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하우스의 설치를 바라는 학교의 입장에 대해 생각이 많았다. 진정한 그린하우스의 필요성으로 인한 진행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단순한 모방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린하우스의 위치가 바뀐다고 한다. 이것도 진짜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 아직도 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이해하지 못하겠다!



## 5.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감정적 문제

유난히 심한 필리핀의 농담에 팀원 한 명이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같은 상황을 바라 보았을 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감정과 현지인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감정의 차이가 현저히 크다. 가령 예를 들면, 얼마 전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발런티어 친구 중 하나가 북방계 인종의 생김새를 비하하는 모션을 아이들과 함께 취하고 있었다. 또한 빈곤 포르노에 대한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자극적인 요소(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에 비해 너희는 행복하다라는 식의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의 전달로 크게 컴플레인을 걸었던 적이 있다. 컴플레인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피드백은 단순한 자기방어이자 변명뿐이었다. 실망스러웠다.



**06**

# 개인 에세이



# 개인 에세이

## Amelia 이야기



3번째 덤프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일이다. 한 아이가 정말 많이 아팠다.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아 아이의 엄마는 손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만 있었다. 유일한 약이라곤 엄마의 젖을 먹는 것 뿐. 그때 아이의 몸을 만졌을 때, 아이의 몸은 열이 나서 정말 뜨거웠다. 뜨거워 잡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

그날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빛이 차단되는 것 같은 덤프사이트를 한동안 떠나지 못했다. 매번 와도 익숙해지지 않는 이 아픔이, 코끝을 찌르는 쓰레기 냄새보다 더 싫었다. 집에 가는 길, 지프니 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도 우리의 시간은 멈추고만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익숙한 것도 아름답게 빛나는 곳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 밖으로 들리는 새소리,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구름 가득한 하늘. 비가 자주 내려서 빨래가 마르지 않는 날이 많아 가끔 짜증이 나지만, 원수 같은 비가 내린 뒤엔 시원함을 선물로 주고 간다. 매번 더위와 찌름하느라 하루의 끝은 늘 피곤함으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저녁, 우리집 옆집에 사는 아가인 Zyurss의 포옹 한번이면 잠시 동안이라도 그 피곤함이 날아가곤 한다. 팡가시난YMCA의 총장님부터 자원봉사자 친구들까지 모두 둘도 없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또한 내가 가진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었다. 또 푸가로에 가면 늘 보는 것만으로도 웃는 소리만으로도 행복하게 해주는 데이케어 센터 아이들. 마지막으로 밤하늘의 별 같은, 우리 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해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덤프사이트 아이들과 사람들.

한국은 어느새 가을이 왔다. 선선해 걷기 좋은 날씨지만 어느새 겨울을 마주하고 따뜻함을 찾곤 한다. 24살의 나는 이 곳에서 여름 속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따뜻함이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같다. 마음 아파하던 우리를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고, 지쳐 있는 우리에게 큰 힘을 주었다.

내일이면 또 다시 더위와 찌름하는 하루를 보낼 것이며, 매번 비 때문에 마르지 않는 빨래 때문에 짜증이 날 것이며, 매번 짠 음식들에 한국음식이 그리워지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낼 것이다. 그래도 두렵지 않다. 분명 나의 사람들이, 귀한 모든 사람들이 빈틈없이 고맙고 감사한 하루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 개인 에세이

## Dencio 이야기



눈이 퉁퉁 부어서 필리핀에 도착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필리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영어를 쓰고 바나나가 우리나라보다 짠 나라. 딱 이 정도였다. 설렘보단 걱정을 한 가득 안고 시작한 필리핀생활. 마닐라 관광을 마치고 팡가시난으로 왔을 때는 기분이 묘했다. 1달간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우리의 친구나 이웃이 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신기하다. 짜고 신맛이 강한 음식들이 처음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것, 날씨가 오락가락해도 불만이 없는 것은 내가 이미 필리핀에 적응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그렇게 9월이 갔다. 주 활동지인 덤프사이트와 푸가로는 나를 울고 웃게 만들었다. 그러놓은 듯 파랗고 예쁜 하늘 아래 쓰레기는 나의 이상을 허무하게 박살냈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다. 갈 때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었고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쓰레기통에 핀 장미꽃에 물을 주는 기분이었다. 흙 위에 고였을 때만 깨끗할 뿐, 물이 뿌리까지 닿는 시간보다 오염되는 시간이 더욱 빨랐다. 무언가를 해줄 수 없는 나의 부족한 능력과 현실이 내 이상을 자꾸 짓밟는다. 푸가로에 있는 그린하우스도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였다. 솔직히 말하면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 능력을 키우고 많은 돈을 벌어서 다시 오고 싶었다. 가끔은 포기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딜 가든 아이들이 있다. 나를 보고 부끄러운 미소를 짓는다. 도와달라 하지도 않고 아프거나 힘들다고 울지도 않는다. 그런데 아이들을 외면해버리면 희망의 씨앗을 짓밟아 버리는 것 같아서 포기하기 싫고 불가능하더라도 발악해보고 싶어졌다.

몸도 마음도 힘들다. 배려, 이해, 적응 등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생각할 것들도 너무 많다. 글을 쓰고 일기를 써도 갈증이 해소가 되질 않는다.

나는 왜 라온아미에 합격했고, 필리핀에 왔고, 팀원들은 어떻게 결정됐고, 우리 혹은 내가 할 수 있는(우리 혹은 나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등. 머리가 터질 것 같다. 10월도 금연과 다이어트는 힘들 것 같다.

힘들수록 오기가 생긴다. 복잡할수록 재밌어 진다. 적어도 내가 보는, 서있는, 느끼는 사회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적응기간은 끝났다. 본 게임을 시작해보자.

P.S. 팀원들이 수염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한다. 사무국은 내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니 들어주세요.

# 개인 에세이

## Rosita 이야기



나에게 이번 달은 필리핀 적응과 내가 꿈꾸던 라온아띠, 그나마 국내훈련을 끝내고 어떻게 라온아띠를 즐겨볼 것인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다.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본 한 달. 처음에는 색다른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차 내가 살던 곳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즉,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과거 난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보다는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렇기에 난 이들의 웃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살아보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를 건 하나 없었다. 이들이 나에게 환하게 웃어주고 인사를 건네는 이유는 나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왜 나는 한국에서는 한 번에 남에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를 한 적이 없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갑고 항상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했을까? 한국에 돌아가 이곳에서 했던 인사처럼 사람을 대해보면 우리나라 참 따뜻한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또한 과거에 난 연민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덤프사이트에 가서 내가 과거에는 “나의 우월감으로 이들을 연민이라는 감정으로 봐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요즘에는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지켜주기 보다는 이들을 궁금해 하고 이들의 삶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혼자서 공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서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있도록.

국내훈련을 끝내고 “라온아띠”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 난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내가 한국에서 내린 답은 최대한 이곳에 적응해 보고 경험해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보자는 생각을 했었다. 막연하게 한국에서 생각한 목표를 갖고 이곳에 대입하려 하지 말고 이곳의 상황에서 의미를 찾아보려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동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 했다. 물론 아직까지 올바른 행동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들지만 현재 최선이라는 생각은 든다. 스스로 만족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생각은 계속, 계속 아직 9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필리핀의 생활이 그렇게 편하고 마냥 행복하지 않은 않다. 어찌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9월을 보낸다고 마냥 편하고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 이다. 그때, 그때 마다 힘들어 있으면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에게 최면을 걸면서 10월 한 달의 활동을 시작해보려 한다.

# 개인 에세이

## Lucas 이야기



필리핀에 온지 한 달이 지났다.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 비행기로 고작 4시간 날아왔을 뿐인데 많은 것들이 다르다. 실제로 마주한 광경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내가 가진 능력은 초라하고 미비하다. 계속 고민해도 산출물이 없다. 매 순간의 선택이 복잡하고 어려웠다.

사람에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속되는 많은 것들이 있다. 국적, 부모 등을 시작으로 많은 것들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선천적으로 정해진다. 사람은 어쩌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삶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에서 태어나더라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알파하기 때문에 단순한 희망 하나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 단순한 희망이라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의지로 극복할 수 있을 것, 전지전능한 존재의 구원을 바라는 것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믿음의 힘을 이곳에서 더 크게 느낀다.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은 알파하다. 자기방어적인 요소들을 항상 지니고 있고 매 순간 모순되기 쉽다. 편협한 인간은 특히나 자신이 동경하는 특정 대상, 단체 혹은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 등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 틀 안에 갇힌다. 사고 판단이 흐려지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유와 근거가 부족해지고 맹목적인 신념과 믿음으로 문제에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과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옳다고 믿게 된다. 매 순간 의심하고 고민해야 한다.

월간 RABA 9월호



# Salamat po! 10월호에서 만나요!



Edit by . **Amelia** | **Dencio** | **Rosita** | **Lucas**

Copyright © RaBa. All rights reserved